Weekly Global Market 2014. 02.17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rturday
						1
2	3	4	5	6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27	28	

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4년 2월 17일

위험프리미엄 감소로 이머징 증시 회복 전망

- **옐런 의장 발언, 유럽 경제지표 호조, 중국 무역지표 호조 – 위험프리미엄 감소 전망**

미국 지표부진 불구 옐런의장 금융정책 연속성 유지 발언으로 상승

지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산업생산, 소매매출 등 한파에 따른 미국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옐런 미 연방의장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 발언과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존의 실업률, 물가상승률의 정량적 지표에서 정성적(qualitative)인 상황 판단으로 수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가시면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정책기대감 및 수출입 규모 확대로 투자심리 개선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양회(3/3)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양회에서 스모그,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규제 강화가 집중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부터 축소하기로 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축소 폭을 줄이기로 발표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1 월 수출입이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다.

유로존 4분기 GDP 호조(0.3% QoQ, 예상 및 전분기 0.2%)

주말에는 프랑스, 독일등 유로존 중심국가는 물론 이태리,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까지 4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성장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주식시장은 다시 전고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머징 시장도 중국 이외에는 상승 강도도 높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달러화 약세로 이머징통화 안정 및 원자재 가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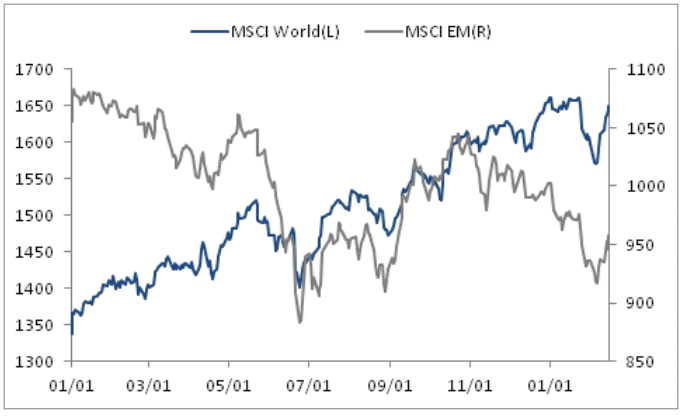
한편, 상대적으로 유로존 경제지표가 미국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이머징 시장에는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달러약세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통화의 안정세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강세를 유도해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험프리미엄 감소로 이머징 증시 관심도 증가 전망

이번 주 주식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와 함께 중국지표의 부정적 영향이 완연히 완화되는 모습이 전개됨에 따라 축소된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전고점 수준에 임박한 선진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등 폭이 미약한 이머징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반등 과정에서 섹터별로 지난 해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보다는 소외되고 저평가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차별화된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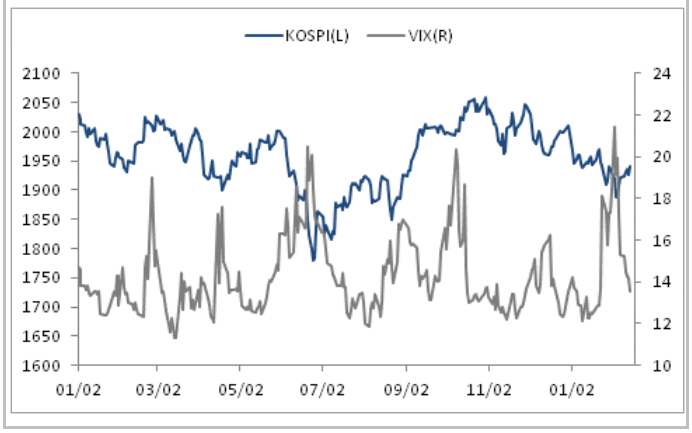
한국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외국인의 매매패턴이 아직은 전반적인 순매수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저평가도가 심화된 IT 섹터에 대해서는 강한 순매수를 보이는 등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hibit 1전고점에 근접한 MSCI World vs 부진한 MSCI EM지수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주가

Exhibit 2 변동성 지수(VIX 지수)와 KOSPI 지수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주가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PMI, 소매매출, 산업생산 등 최근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 1 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은 경제 지표 부진을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왜곡 현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옐런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사실상 폐기를 언급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도 상당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하여 뉴욕 증시는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금주 시장은 전 주 상승세가 컸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 영향이 가시지 않은 경제 지표 발표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2~3 월의 지표 회복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발표될 경제 지표로는 미국 경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관련 지표가 있다. 19 일 1 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22 일 기존주택매매가 발표될 예정으로 한파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주 초반 발표될 2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21 일 발표될 선행지수는 개선세를 보이며 향후 3~6 개월 동안 미국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 가운데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는 섹터별 차별화,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 실적 발표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 일 코카콜라, 20 일 테슬러모터스, 21 일 월마트, HP, 그루폰, 노스트로돔이 발표되는데, 테슬라모터스와 그루폰이 전분기 주당순이익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마트는 이전 분기 대비 주당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 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1 월 진행된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21 일에는 재닛 옐런 FED 의장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며, 21~22 일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다. 17 일(월)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한다.

- **유럽**

최근 유럽의 상황은 경기 회복 기대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두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함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 부양 의지가 이를 상쇄할 만큼 강하고, 지난 주 발표된 유로존 4분기 경제성장률(GDP) 예비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유로존 회복세를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특히 재정 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증시에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이번 주에는 유로존의 2월 PMI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으로, 제조업 PMI 지수는 다소 정체된 가운데 PMI 서비스 지수의 회복이 복합 PMI지수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소비자 기대 지수도 개선되며 미국 대비 강도 높은 유럽 지역의 회복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아시아**

주말 발표된 1월 신규위안화대출은 1.32조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인 1.1조 위안과 전월치인 4,825억 위안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4년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1월 M2 증가율은 YoY+13.2% 기록하여 예상치에 부합하였고 전월치인 13.6%를 하회하였다. 급격한 신용팽창과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당분간 정부는 유동성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발표 예정인 2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1월 수출입 서프라이즈를 감안할 때 제조업 경기의 추가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IPO재개에 따른 자금 압박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는 1월 31일까지 증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2013년 연간 재무자료를 보충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월 IPO로 인한 수급 부담 완화와 3월 양회를 앞둔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주요 기업실적 발표 이후 숏커버링 유입과 옵션 만기 이후 경기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며 증시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주 FED의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외부변수에 따른 경제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도 1,060원대로 여타 신흥국 대비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철강, 화학, 건설 업종이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게임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1-1. 미주지역 Review

➢ 경제

지난 주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4% 감소하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33만9000건으로 집계돼 8000건 증가, 전망치 33만 건을 상회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1월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3% 감소하며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상승세를 보이던 설비가동률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부진은 두드러졌으나 시장은 지표 부진 원인을 한파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오히려 2-3월 경제지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즉, 미 연준의 통화정책 연속성이 강조되고, 최근 제조업 경기 및 고용지표의 예상 밖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파와 같은 이례적인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 둔화 우려는 줄어 든 것이다. 한편 1월 NFIB소기업 낙관지수는 94.1를 기록하면서 예상치(93.9)를 상회했고, 12월 도매재고는 전월대비 0.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0.5%)를 하회해 긍정적이었다.

지난 주 11일 옐런 의장의 하원 청문회 출석과 연설이 있었고, 향후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옐런 의장은 테이퍼링과 관련 "경제가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향후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균형에 맞게 줄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초저금리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3일 제임스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이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였다. 아울러 연방 하원은 전체 회의를 통해 2015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했다.

➢ 주식

지난 주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지만 옐런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한파 영향이 지나가면 향후 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증시는 2%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지수, S&P500, 나스닥 지수가 각각 2.3%, 2.9%, 2.3% 상승 마감하며,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주간 상승률은 작년 12월 20일로 끝난 주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섹터별로 유틸리티, 헬스케어 섹터가 각각 3.3%, 3.0% 상승했다. 지난 해 미국 증시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유틸리티 섹터에 주목하는 동향이 커지고 있다.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금, 은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금, 은 선물 가격이 지난 주 각각 4.4%, 7.4% 상승했다. 은 가격은 약 6년 만에 최장기간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약세의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 주식 시장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자 안전자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S&P500 소재 섹터가 지난 주 3.0%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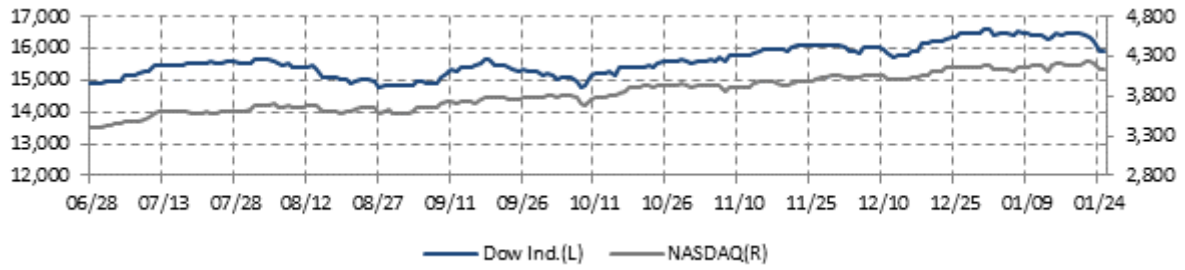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미국 국채 시장은 주식 시장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또 주 후반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1 월 수입물가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인 점도 국채 약세의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의 1 월 산업생산지표, 소매판매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1 분기 성장률 둔화 우려도 제기되며 달러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하락했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2-11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93.90	94.10	93.90	0.20	0.20
발표	2014-02-12	미국	도매재고전월비	(%)	0.50	0.30	0.50	-0.20	-0.20
발표	2014-02-13	미국	월간재정수지	($십억)	-10.00	-10.40	2.90	-0.40	-13.30
발표	2014-02-13	미국	소매판매추정전월비	(%)	0.00	-0.40	0.20	-0.40	-0.60
발표	2014-02-13	미국	소매판매 (자동차제외) 전월비	(%)	0.10	0.00	0.70	-0.10	-0.70
발표	2014-02-13	미국	소매판매 (자동차및가스제외)	(%)	0.10	-0.20	0.60	-0.30	-0.80
발표	2014-02-13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천)	330.00	339.00	331.00	9.00	8.00
발표	2014-02-14	미국	기업재고	(%)	0.40	0.50	0.40	0.10	0.10
발표	2014-02-14	미국	광공업생산MoM	(%)	0.20	-0.30	0.30	-0.50	-0.60
발표	2014-02-14	미국	설비가동률	(%)	79.30	78.50	79.20	-0.80	-0.70
발표	2014-02-14	미국	수입물가지수전월비	(%)	-0.10	0.10	0.00	0.20	0.10
발표	2014-02-14	미국	미시간대기대지수		80.20	81.20	81.20	1.00	0.0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404.2	2.4	-0.5	1.1	-1.1
다우종합	16,154.4	2.3	-1.8	1.2	-2.5
NASDAQ	4,244.0	2.9	1.1	6.5	1.6
S&P 500	1,838.6	2.3	-0.0	2.2	-0.5
멕시코 IPC	40,710.9	0.5	-2.9	-0.8	-4.7
브라질보베스파	48,201.1	0.3	-2.0	-9.8	-6.4
S&P 500 에너지	627.1	2.3	-1.2	-2.3	-3.8
S&P 500 소재	290.7	3.0	0.3	2.8	-0.3
S&P 500 산업재	443.1	1.8	-1.1	2.4	-2.1
S&P 500 경기소비재	516.9	1.7	0.1	0.5	-2.5
S&P 500 필수소비재	429.2	2.0	-0.9	-3.8	-3.0
S&P 500 헬스케어	673.0	3.3	1.9	7.1	4.8
S&P 500 금융	291.2	1.6	-1.5	2.5	-1.2
S&P 500 IT	592.6	2.9	1.0	6.7	1.2
S&P 500 통신서비스	148.0	1.8	-2.1	-6.4	-4.8
S&P 500 유틸리티	204.0	3.3	5.4	2.5	5.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PRICELINE.COM INC	1,280.0	7.1	9.1	12.3	10.1
WALT DISNEY CO/THE	79.2	4.7	6.7	13.2	3.7
APPLE INC	544.0	4.7	-2.4	3.6	-3.0
TEXAS INSTRUMENTS INC	43.9	4.6	0.7	3.1	-0.1
CELGENE CORP	163.9	4.5	-0.9	8.5	-3.0
FACEBOOK INC-A	67.1	4.3	16.5	36.9	22.8
AMGEN INC	123.8	4.2	4.5	7.7	8.6
BIOGEN IDEC INC	328.3	4.0	10.6	33.9	17.4
COMCAST CORP-CLASS A	53.7	-1.7	-0.7	12.5	3.3
AMAZON.COM INC	357.4	-1.0	-9.7	-3.2	-10.4
BANK OF AMERICA CORP	16.7	-0.7	-2.6	11.9	7.3
VERIZON	46.5	-0.6	-3.6	-7.6	-5.4
CISCO SYSTEMS INC	22.6	-0.5	-1.0	4.8	0.6
MCDONALD'S CORP	95.8	-0.1	0.3	-1.2	-1.3
EBAY INC	54.8	0.3	1.8	4.1	-0.2
VODAFONE GROUP	36.8	0.6	-5.4	-1.2	-6.4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74	6.0	-14.8	4.0
국고채 5년	1.53	5.5	-14.7	18.1
LIBOR 3M	0.24	0.2	-0.2	-0.2
EUR-LIBOR 3M	0.26	0.1	-0.9	9.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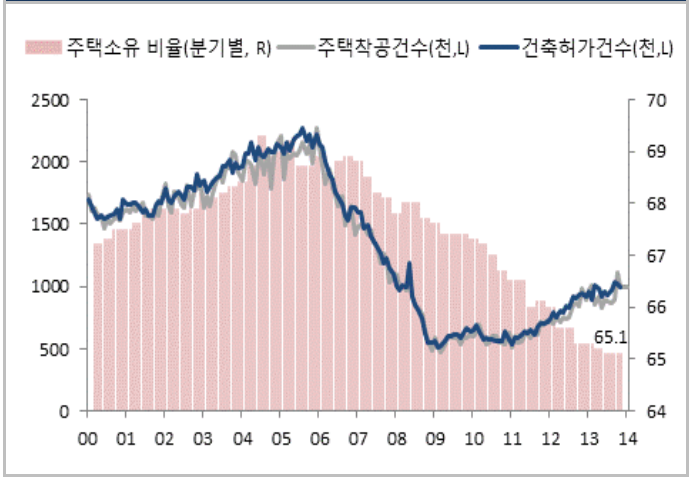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0.14	-0.7	-1.1	-0.9
USD/EUR	1.369	0.4	0.5	1.5
JPY/USD	101.80	0.5	2.5	-1.6
CNY/USD	6.07	-0.0	-0.3	0.4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1-2. 미국경제 Preview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로는 주택관련지표가 있다. 1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건수는 19일 발표될 예정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향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조성돼 있다. 두 지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땅을 파고 건설을 시작하는 순간의 건수를 집계하는 것으로 향후 수개월~수년간 건설, 노동 등의 여타 산업에 영향을 줘 경기 판단에 용이한 지표이다. 미국의 한파 영향으로 주택 착공과 허가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시장은 이미 한파 이후의 회복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또 잠재된 주택 수요가 아직 충분하다는 점은 미국의 주택 시장 회복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주택소유비율은 65.1%(지난 4분기)로 지난 2004년 고점 이후 크게 하락한 모습으로 향후 주택을 구입할 잠재된 수요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계 소득도 늘고 주택 구매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도 향후 주택 시장의 개선을 예상케 하는 요인이다.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약 2.74%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초 3% 수준에서 크게 떨어져있다. 테이퍼링으로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주택시장이 크게 가라앉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 시장 회복세 재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주 발표될 주택관련지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Exhibit 11 주택착공, 건축허가 건수와 주택소유 비율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2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준금리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0일 발표될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는 1.6%로 이전치 1.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물가는 미국 경제의 걱정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1% 대의 물가상승률은 원유가격 하락세와 비석유부문 수입물가 하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크고, 옐런 의장은 저물가 상황에 대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며 큰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유럽보다는 낮은 편이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비추어 보아 저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고용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컨퍼런스보드 1월 경기 선행지수는 개선세를 보이며 향후의 미국 경제 회복을 지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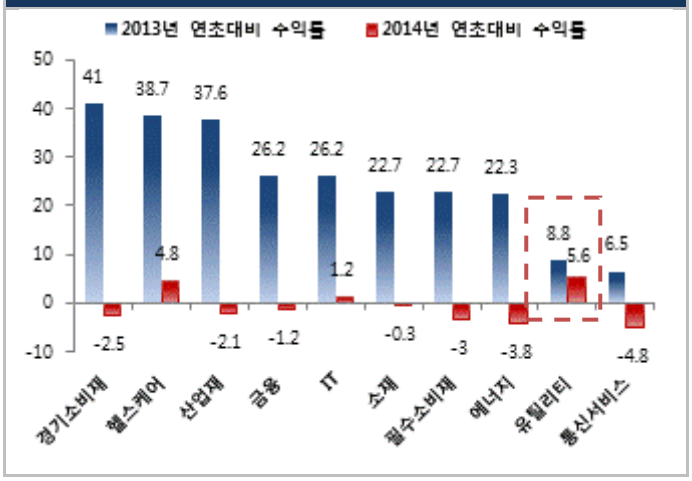
Exhibit 13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2-18	미국	제조업지수 (뉴욕주)		9.00		12.51
예정	2014-02-19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56.00		56.00
예정	2014-02-19	미국	PPI (식품및에너지제외) 전년비	(%)	1.40		1.20
예정	2014-02-19	미국	주택착공건수전월비	(%)	-4.90		-9.80
예정	2014-02-19	미국	건축허가 (전월대비)	(%)	-1.60		-3.00
예정	2014-02-20	미국	CPI (전년대비)	(%)	1.60		1.50
예정	2014-02-20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천)	334.00		339.00
예정	2014-02-20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천)	2,975.00		2,953.00
예정	2014-02-20	미국	Markit미국 PMI 잠정		53.70		
예정	2014-02-21	미국	필라델피아연준경기전망		8.00		9.40
예정	2014-02-21	미국	선행지수	(%)	0.40		0.10
예정	2014-02-22	미국	기존주택매매 (전월대비)	(%)	-4.10		1.00

1-3. 미국주식시장 Preview–섹터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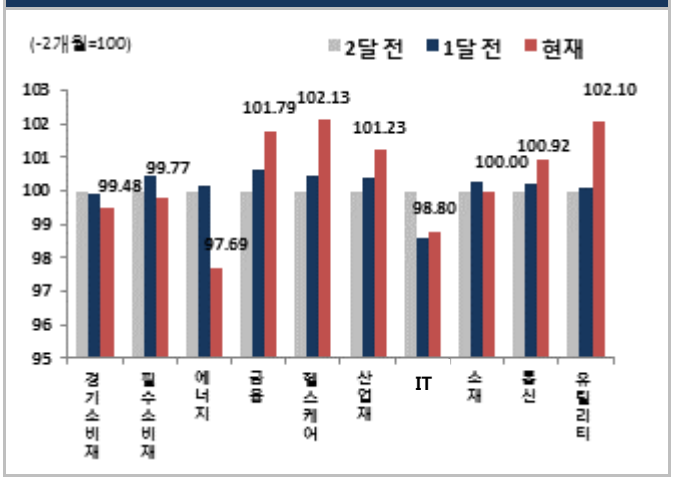
2014년 S&P500 10개 섹터 흐름은 2013년과 달리 흐르고 있다. 먼저 2013년 연초 이후 4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기 소비재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경기소비재 섹터 내의 약 37%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소매(Retailing) 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단, 최근 미국의 한파가 소매 업종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줘,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뚜렷한 소비, 소매업 회복이 있지 않다면 '시장 비중' 정도를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반면 2013년 유틸리티 섹터의 수익률은 부진했으나 2014년 연초 이후 테이퍼링과 한파 영향에 따른 경제 개선 속도 우려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보인 가운데, 동 기간 중 유틸리티 섹터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25개의 유틸리티 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약 3.72%를 기록하며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국채보다는 유틸리티 섹터에 투자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수익률이 높아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기 보다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12M FWD EPS 추세를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의 추세가 1달 전, 혹은 2달 전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 또 최근 유틸리티 시설의 노후화로 교체 수요가 증가해 자본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가 수익성 개선으로 뚜렷하게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자본지출 증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겨울철 한파 영향으로 전기 소비가 증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겨울 한파와 조정 장세가 지나가면 유틸리티에 몰린 관심은 경기 민감주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해 오르지 못한 만큼 충분히 반영된 후에 시장의 관심은 옮겨갈 것으로 판단한다.

Exhibit 14S&P500 섹터별 2013 년, 2014 년 연초 이후 수익률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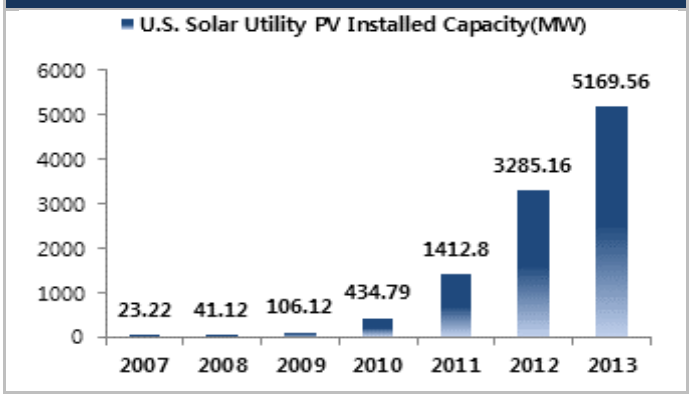
Exhibit 15 S&P500 섹터별 12M FWD EPS 추정치 변화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한편, 전력 생산관련 20개 선도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유틸리티 지수도 최근 S&P500과 비교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부 업종 중 태양광 관련 업황을 살펴보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시설은 2010년 435MW에 비해 2013년에는 10배 이상인 5170 MW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 제도(*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것), 기술 혁신, 세제 혜택이 태양광 에너지 비용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RPS 제도의 활성화와 한파 영향이 있다. NRG, Calpine(CPN), Exelon(EXC), Nextera(NEE)이 이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지니고 있다.

Exhibit 16 미국 태양광 유틸리티 설비 용량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S&P500 VS 필라델피아 유틸리티 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1. 유럽지역 Review

➢ 경제

유로존은 경기회복세 둔화를 둘러싼 신중한 행보 속 4 분기 GDP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이며 유로존의 뚜렷한 경제 성장을 지지했다. 독일의 4 분기 GDP 는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며 유로존 성장을 주도했다. 3 분기에는 내수소비가 주도했으나 4 분기에는 수출이 수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프랑스 4 분기 GDP 성장률도 0.3%을 기록해 예상치 0.2%를 소폭 웃돌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4 분기 GDP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0.1% 올랐다. 이는 지난 2011 년 2 분기 이후 첫 성장세다. 또 포르투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0.5% 성장하며 0.1%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회했다. 이로써 유로존 4 분기 GDP 는 전분기보다 0.3% 성장해 예상치 0.2%보다 약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이탈리아의 작년 12 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감소하며 4 개월 만에 떨어졌고, 프랑스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3% 하락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로존의 12 월 산업생도 전월대비 0.7% 하락하면서 예상치인 -0.3%와 이전치 1.8%를 크게 하회했지만 유로존 경제성장률 개선세로 이슈화되지 않았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지난해 11 월 실업률이 28%로 발표되면서 이전치 27.8%를 상회하며 여전히 실업률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한편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실업률이 올 봄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고, 7% 미만으로 떨어져도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력화된 것임을 밝혀 시장 불안감을 안정시켰다.

➢ 주식

지난 주 유로존 증시는 4 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와 중국의 수출 호조(수출증가율 10.6%, 무역수지 흑자 319 억불로 예상치를 상회)와 더불어 앨런 의장의 시장 우호적인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범유럽 국가지수인 Euro Stoxx600 은 2.5% 상승한 가운데 이탈리아 FTSE MIB 지수가 3.8% 상승하며 2011 년 2 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첫 성장세를 보인 점을 반영했다. 포르투갈 역시 경제 성장률 호조로 2.9% 상승세를 보였으며 연초대비 수익률은 8.7%로 그리스의 10.1%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로존 성장세를 이끈 주요 국가인 독일 DAX 지수도 3.9% 상승했다. 반면 스페인의 경우 0.6%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 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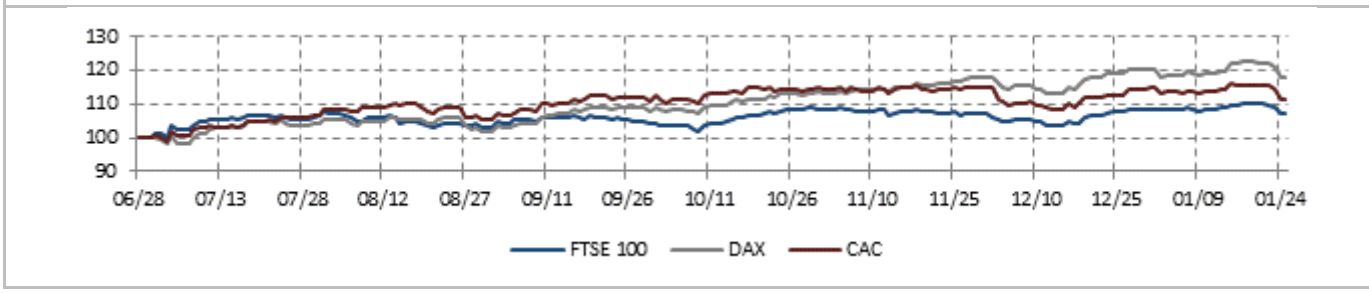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유럽의 국채 시장은 선진유럽의 경우 약세를 보인 반면 남유럽 국가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그리스 국채 시장은 10 년 국채 수익률이 전주 대비 18.8bp 하락한 7.5%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6 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했으나 최근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올해는 상반기에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하반기에는 국채 발행을 시도할 예정으로 그리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유로화는 경제 회복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Exhibit 18 지난 주 유럽 경제 지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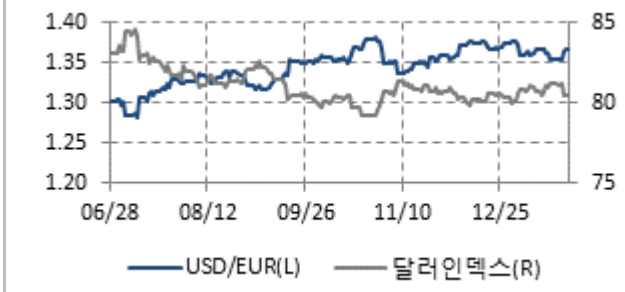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2-12	이탈리아	산업생산 MoM	(%)	0.00	-0.90	0.30	-0.90	-1.20
발표	2014-02-12	유로존	산업생산 SA MoM	(%)	-0.30	-0.70	1.80	-0.40	-2.50
발표	2014-02-13	그리스	실업률 SA	(%)		28.00	27.80		0.20
발표	2014-02-14	프랑스	4Q GDP (전년동기대비)	(%)	0.60	0.80	0.20	0.20	0.60
발표	2014-02-14	프랑스	4Q GDP(전분기대비)	(%)	0.20	0.30	-0.10	0.10	0.40
발표	2014-02-14	독일	4Q GDP SA 전기대비	(%)	0.30	0.40	0.30	0.10	0.10
발표	2014-02-14	독일	4Q GDP WDA 전년대비	(%)	1.30	1.40	0.60	0.10	0.80
발표	2014-02-14	유로존	무역수지 NSA	(십억)	14.50	13.90	17.10	-0.60	-3.20
발표	2014-02-14	유로존	4Q GDP SA 전기대비	(%)	0.20	0.30	0.10	0.10	0.20
발표	2014-02-14	유로존	4Q GDP SA 전년대비	(%)	0.40	0.50	-0.40	0.10	0.90
발표	2014-02-14	유로존	무역수지 SA	(십억)		13.70	16.00		-2.30
발표	2014-02-14	포르투갈	4Q GDP(전Q대비)	(%)	0.10	0.50	0.20	0.40	0.30
발표	2014-02-14	포르투갈	4Q GDP (전년동기대비)	(%)	1.10	1.60	-0.10	0.50	1.70
발표	2014-02-14	이탈리아	4Q GDP WDA 전분기대비	(%)	0.10	0.10	0.00	0.00	0.10
발표	2014-02-14	그리스	GDP NSA 전년대비	(%)	-2.0	-2.6	-3.0	-0.60	0.40
발표	2014-02-14	이탈리아	4Q GDP WDA 전년대비	(%)	-0.80	-0.80	-1.80	0.00	1.00

Exhibit 19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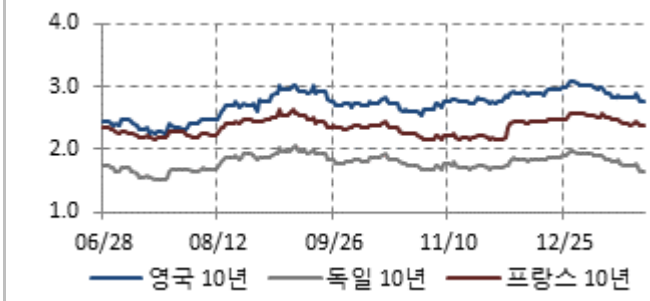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0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2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WORLD	404.2	2.4	-0.5	1.1	-1.1
MSCI EMU	103.8	2.7	-0.7	3.3	1.5
FTSE EUROTOP 100	2,685.3	2.4	-1.2	1.8	0.6
Euro Stoxx 600	333.3	2.5	-0.7	3.2	1.5
Euro Stoxx 50	3,119.1	2.7	-1.1	2.1	0.3
영국 FTSE 100	6,663.6	1.4	-2.4	-0.4	-1.3
독일 DAX	9,662.4	3.9	-0.8	5.4	1.2
프랑스 CAC 40	4,340.1	2.6	0.3	1.1	1.0
이탈리아 FTSE MIB	20,436.5	3.8	2.3	9.4	7.7
스페인 IBEX 35	10,132.8	0.6	-3.2	4.5	2.2
포르투갈 PSI 20	7,132.5	2.9	0.3	12.9	8.7
그리스 ASE	1,280.5	2.0	0.9	13.0	10.1
스위스 SPI	8,043.0	1.3	-0.5	1.5	2.6
러시아 RTS	1,340.6	0.3	-4.0	-7.2	-7.1
터키 ISE 100	64,882.9	0.4	-1.1	-12.6	-4.3
남아공 TOP40	42,093.2	3.2	0.3	4.2	1.5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영국	KAZAKHMYS PLC	소재	1.7	30.9	19.5
프랑스	RENAULT SA	경기소비재	29.2	12.7	10.3
영국	PETROFAC LTD	에너지	7.6	10.2	4.9
프랑스	MICHELIN (CGDE)	경기소비재	22.1	8.8	8.5
프랑스	EDF	유틸리티	70.5	8.4	9.7
영국	LEGAL & GENERAL GROUP PLC	금융	23.7	8.0	3.1
영국	VEDANTA RESOURCES PLC	소재	4.1	7.9	6.3
프랑스	SOCIETE GENERALE SA	금융	51.6	7.5	2.1
영국	TATE & LYLE PLC	필수소비재	5.1	-15.1	-16.1
영국	ROLLS-ROYCE HOLDINGS PLC	산업재	32.2	-12.9	-17.7
영국	MELROSE INDUSTRIES PLC	산업재	5.6	-10.7	1.7
영국	TULLOW OIL PLC	에너지	11.7	-8.1	-11.0
영국	RSA INSURANCE GROUP PLC	금융	5.9	-8.0	-5.0
영국	BARCLAYS PLC	금융	68.2	-6.9	-14.7
영국	ABERDEEN ASSET MGMT PLC	금융	8.1	-4.4	-10.5
프랑스	ALCATEL-LUCENT	IT	12.1	-4.3	-1.9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7	0.4	0.5	1.5
영국 10년	2.8	8.1	-7.0	4.8
독일 10년	1.7	1.8	-14.6	-2.7
프랑스 10년	2.3	3.6	-20.0	9.7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3.7	-0.0	-17.3	-40.3
스페인 10년	3.6	0.5	-17.3	-48.0
포르투갈 10년	4.9	0.6	-22.2	-98.5
그리스 10년	7.5	-18.8	-18.4	-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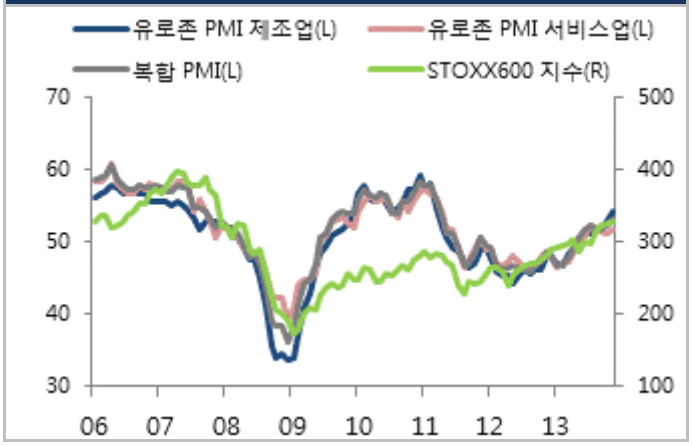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2. 유럽지역 Preview

➢ **경제**

이번 주 발표될 유로존의 경제 지표로는 20일 6시(한국시간기준) 2월 PMI 잠정치가 있을 예정이다. 제조업 PMI의 경우 전월 54.0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지수가 51.6에서 5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지수의 경우 53.1로 이전치 52.9를 상회해 유로존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범유럽국가지수인 STOXX600 지수와 유로존 제조업 PMI와의 2006년 이후의 상관관계는 0.62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0.66으로 제조업 부문을 상회하는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두 지표를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유로존의 소비자기대지수도 21일 자정(한국시간) 발표될 예정으로 -11.2를 기록하며 전월 -11.7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범유럽국가지수인 STOXX600 지수와의 60% 이상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 주목해볼 만한 지표로 꼽을 수 있다.

Exhibit 26 유로존 PMI 지수 VS STOXX600 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7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 VS STOXX60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국가별로 독일 ZEW 유럽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 예상치인 2월 독일 ZEW 서베이 예상치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독일의 2월 PMI 예상치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또 여전히 제조업 PMI는 55를 상회하는 확장 국면으로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21일 영국의 1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약 1.2% 하락돼 이전치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유럽 국가 가운데 빠른 회복세를 보인 영국 경기 회복 속도가 다소 주춤해 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Exhibit 28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예정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2-18	유로존	ECB 경상수지 SA	(십억)			23.50
예정	2014-02-18	영국	CPI (전년대비)	(%)	2.00		2.00
예정	2014-02-18	독일	ZEW 서베이예상		61.50		61.70
예정	2014-02-18	유로존	ZEW 서베이예상				73.30
예정	2014-02-19	유로존	건설생산MoM	(%)			-0.60
예정	2014-02-20	독일	PPI 전년비	(%)	-0.80		-0.50
예정	2014-02-20	프랑스	CPI (전년대비)	(%)	0.80		0.70
예정	2014-02-20	프랑스	PMI 제조업		49.50		49.30
예정	2014-02-20	프랑스	PMI 서비스		49.30		48.90
예정	2014-02-20	독일	PMI 제조업		56.30		56.50
예정	2014-02-20	독일	PMI 서비스		53.40		53.10
예정	2014-02-20	유로존	PMI 제조업		54.00		54.00
예정	2014-02-20	유로존	PMI 서비스		51.90		51.60
예정	2014-02-20	유로존	PMI Composite		53.10		52.90
예정	2014-02-21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11.00		-11.70
예정	2014-02-21	영국	소매판매 (자동차제외) 전월비	(%)	-1.2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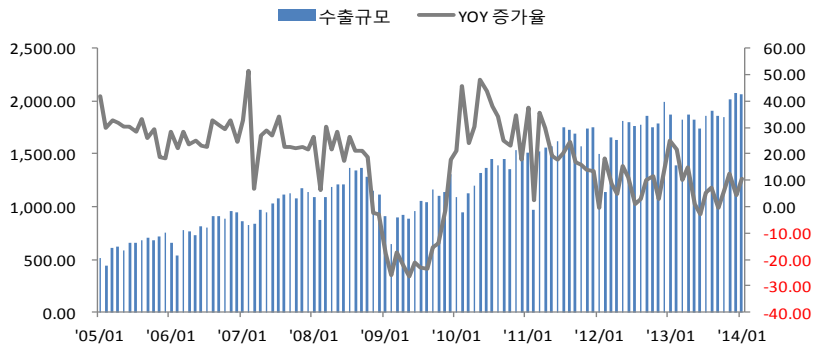
3-1. 아시아 지역 Review

➢ 경제

중국 1 월 수출입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제조업/비제조업 PMI 와 괴리를 나타냈다. 1 월 수출 증가율은 10.6%로 지난해 1 월 핫머니 유입으로 급증한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선진국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 월 미국(10.7%), EU (19.2%), 일본(16.0%) 등 대선진국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최근 금융위기 우려가 높았던 이머징국으로의 수출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1 월 수입 증가율 역시 10.0%를 기록하여 예상치(4.0%)를 대폭 상회하였다. 한편 올해 춘절 연휴(1/31~2/6)가 2 월에 집중돼 있어 1 월에 통관업무가 앞당겨져 수출입 업무가 집중됐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국에서 발표한 1 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2.5%를 기록하여 전월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치인 2.4%를 소폭 상회하여 물가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1 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하여 23 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12 월 경상수지는 엔화 약세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6,386 억엔 적자를 기록하였다. 12 월 핵심기계수주가 MoM -15.7% 급감하여 3 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hibit 29 중국 수출규모 추이 – 1 월 수출 서프라이즈(억 달러, %)



➢ 주식

지난주 중국 증시는 IPO 물량 압박 완화, 1 월 수출 서프라이즈 등 호재들이 겹치면서 금융, 석유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상해종합지수가 3.5% 넘게 상승하였다. 홍콩 증시도 블루칩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어 3% 넘게 상승하여 최근 5 개월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엔화 강세가 증시의 발목을 잡아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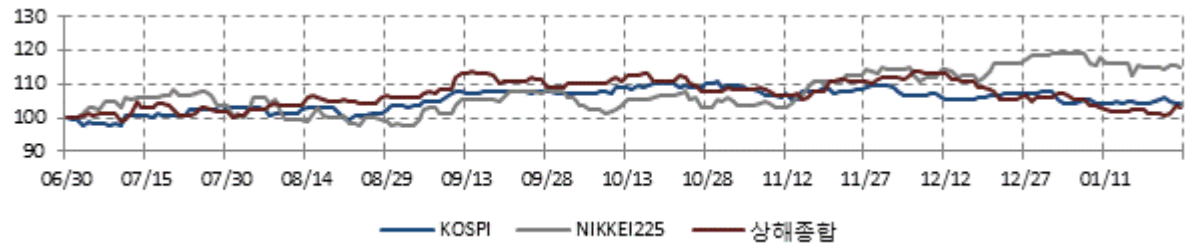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주 중국 증시는 춘절 자금 수요에 대비해 역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풀렸던 4,500 억 위안의 자금이 회수되면서 단기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Shibor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엔 달러 환율은 101 엔까지 하락하여 강세를 보였다.

Exhibit 30 아시아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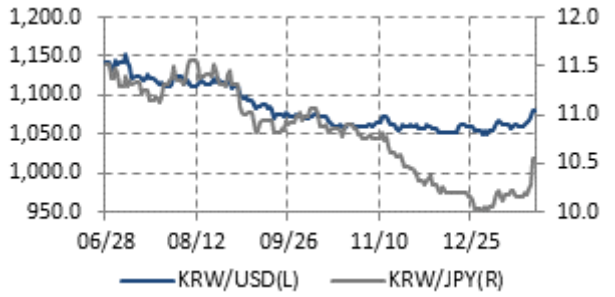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4-02-10	일본	BoP경상수지	(십억)	-685.4	-638.6	-592.8	46.80	-45.80
발표	2014-02-12	한국	실업률 SA	(%)	3.00	3.20	3.00	0.20	0.20
발표	2014-02-12	일본	기계수주MoM	(%)	-4.00	-15.70	9.30	-11.70	-25.00
발표	2014-02-12	중국	무역수지	($십억)	23.45	31.86	25.64	8.41	6.22
발표	2014-02-12	중국	수출YoY	(%)	0.10	10.60	4.30	10.50	6.30
발표	2014-02-12	중국	수입YoY	(%)	4.00	10.00	8.30	6.00	1.70
발표	2014-02-12	일본	공작기계수주전년비	(%)		39.60	28.10		11.50
발표	2014-02-14	중국	PPI 전년비	(%)	-1.60	-1.60	-1.40	0.00	-0.20
발표	2014-02-14	중국	CPI (전년대비)	(%)	2.40	2.50	2.50	0.10	0.00
발표	2014-02-14	중국	신규위안대출	(십억)	1,100.00	1,320.00	482.50		
발표	2014-02-14	중국	M2 전년비	(%)	13.20	13.20	13.60		

Exhibit 31 아시아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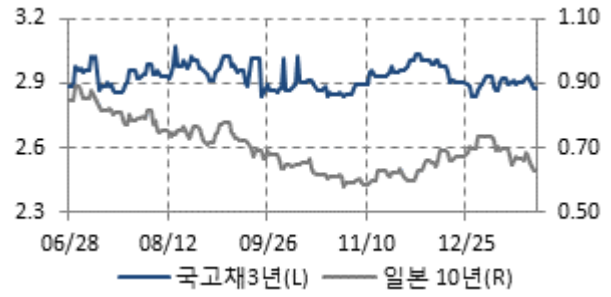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2 원화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33 한국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아시아주요국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35.4	1.6	-3.0	-4.4	-4.2
MSCI EM	957.3	2.1	-1.5	-4.8	-4.5
MSCI EM Asia	429.5	2.1	-1.4	-2.5	-3.8
한국 KOSPI	1,940.3	0.9	-0.2	-3.3	-3.5
일본 NIKKEI 225	14,313.0	1.1	-9.0	-5.6	-12.1
중국상해종합	2,115.8	3.5	5.5	-0.9	-0.0
홍콩항생	22,298.4	3.1	-3.6	-3.2	-4.3
대만가권	8,513.7	1.5	-1.0	4.1	-1.1
호주 ASX 200	5,356.3	3.7	0.9	-0.8	0.1
뉴질랜드 NZX 50	4,888.4	1.0	-0.1	-0.5	3.2
인도 SENSEX 30	20,366.8	-0.0	-3.3	-0.2	-3.8
싱가포르 STI	3,038.7	0.8	-3.5	-5.1	-4.1
태국 SET	1,311.9	1.3	1.2	-7.3	1.0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508.0	0.9	2.2	4.0	5.5
필리핀PSEi	6,113.7	1.7	2.1	-3.7	3.8
베트남호치민	572.2	4.1	5.3	14.1	13.4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아시아주요종목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한국	DONG-A SOCIO HOLDINGS CO LTD	헬스케어	0.5	12.7	-5.0
중국	KANGMEI PHARMACEUTICAL CO-A	헬스케어	7.0	12.6	14.4
일본	YAHOO JAPAN CORP	IT	34.6	9.5	-0.8
중국	WANT WANT CHINA HOLDINGS LTD	필수소비재	19.0	9.4	4.1
중국	SHANGHAI PHARMACEUTICALS-A	헬스케어	6.6	8.3	10.7
중국	ZHEJIANG CHINT ELECTRICS-A	IT	4.3	8.0	3.0
중국	INNER MONGOLIA BAOTOU STEE-A	소재	9.0	7.3	5.0
중국	KWEICHOW MOUTAI CO LTD-A	필수소비재	24.5	6.7	20.3
한국	LG UPLUS CORP	통신서비스	4.0	-6.5	-12.0
한국	SHINHAN FINANCIAL GROUP LTD	금융	18.9	-4.9	-4.1
한국	SK TELECOM	통신서비스	15.1	-3.9	-13.3
중국	SANAN OPTOELECTRONICS CO L-A	IT	6.7	-3.2	-9.8
한국	LG HOUSEHOLD & HEALTH CARE	필수소비재	7.0	-2.9	-14.0
한국	SAMSUNG C&T CORP	산업재	8.6	-2.2	0.2
한국	KB FINANCIAL GROUP INC	금융	13.3	-1.8	-8.9
한국	KIA MOTORS CORPORATION	경기소비재	20.4	-1.3	2.9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6 아시아주요채권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16	-3.4	-10.6	-8.7
일본 10년	0.59	-2.2	-6.7	-3.6
중국 10년	4.47	-1.2	-11.2	-7.3
호주 10년	4.11	-4.8	-13.0	-9.6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37 달러환율추이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063.35	1.04	-0.06	0.02
JPY/USD	101.80	0.49	2.50	-1.58
CNY/USD	6.07	-0.04	-0.33	0.43
AUD/USD	1.11	0.85	1.44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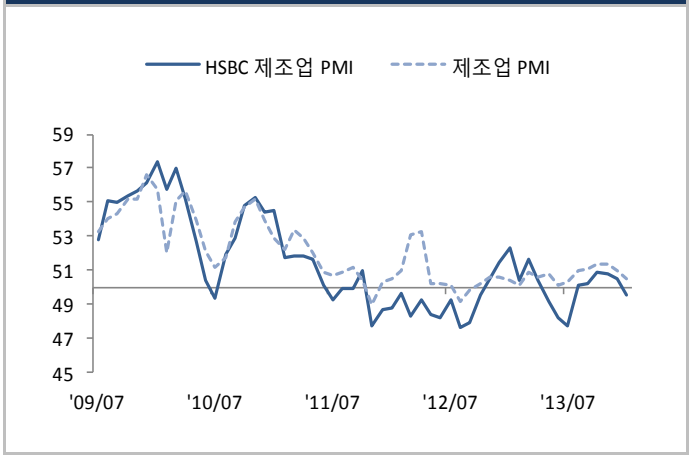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2. 중국, 일본지역 Preview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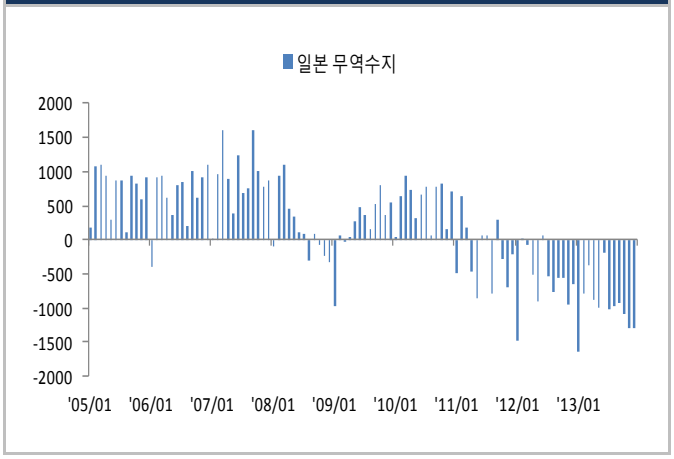
주말 발표된 1 월 신규 위안화대출은 1.32 조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와(1.1 조 위안) 전월치(4,825 억 위안)를 크게 상회하여 최근 4 년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1 월 M2 증가율은 YoY+13.2% 기록하여 예상치에 부합하였고 전월치인 13.6%를 하회하였다. 급격한 신용팽창과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당분간 정부는 유동성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발표 예정인 2 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월 수출입 서프라이즈를 감안할 때 제조업 경기의 추가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IPO 재개에 따른 수급부담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는 1 월 31 일까지 증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2013 년 연간 재무자료를 보충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월 IPO 유동성 완화와 3 월 양회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으로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Exhibit 38 중국 제조업 PMI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9 일본 무역수지 추이 (단위:십억엔)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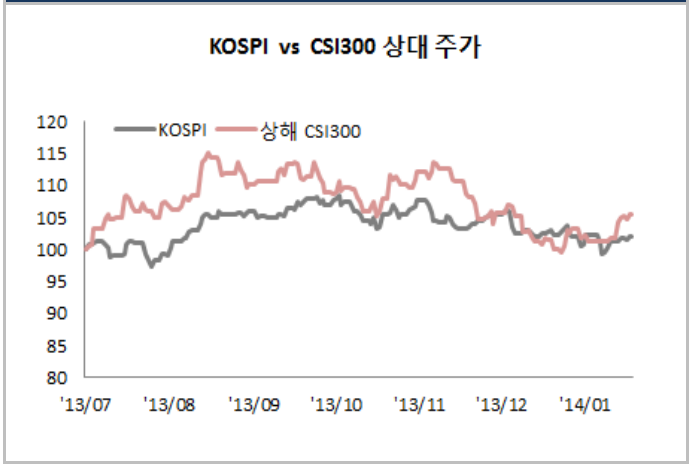
금주 발표 예정인 일본 지난해 4Q GDP 속보치는 전분기(1.1%)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 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수요가 앞당겨 질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 월 무역수지는 원유 수입 증가와 내구재 수입 증가로 적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hibit 40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예정	2014-02-17	일본	GDP SA 전기대비	(%)	0.70		0.30
예정	2014-02-17	일본	GDP 연간화 전분기 대비	(%)	2.80		1.10
예정	2014-02-17	중국	외국인직접투자YoY	(%)	2.50		3.30
예정	2014-02-18	한국	PPI 전년비	(%)			-0.40
예정	2014-02-18	일본	공작기계수주전년비	(%)			39.60
예정	2014-02-19	한국	단기대외채무	($십억)			111.50
예정	2014-02-19	일본	전체산업활동지수(전월대비)	(%)	0.10		0.30
예정	2014-02-19	일본	선행지수 CI				112.10
예정	2014-02-19	일본	동행지수				111.70
예정	2014-02-19	일본	전국백화점판매YoY	(%)			1.70
예정	2014-02-19	일본	도쿄백화점판매YoY	(%)			3.60
예정	2014-02-20	일본	무역수지	(십억)	-2,487.00		-1,302.10
예정	2014-02-20	일본	무역수지조정	(십억)	-1,520.00		-1,148.60
예정	2014-02-20	일본	수출YoY		12.70		15.30
예정	2014-02-20	일본	수입YoY		22.70		24.70
예정	2014-02-20	중국	HSBC/Markit플래시제조업 PMI		49.40		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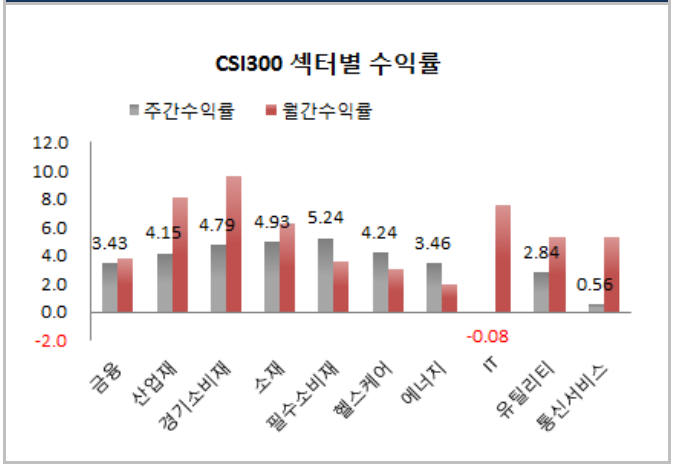
3-3. 중화권지역 Sector

Exhibit 41 KOSPI VS CSI300 상대주가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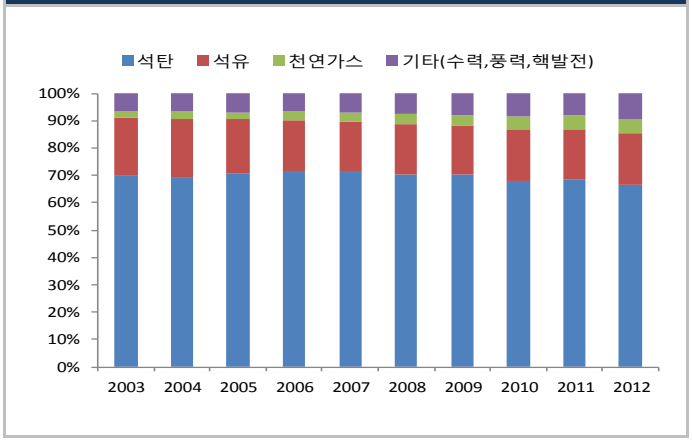
Exhibit 42 CSI300 섹터별 수익률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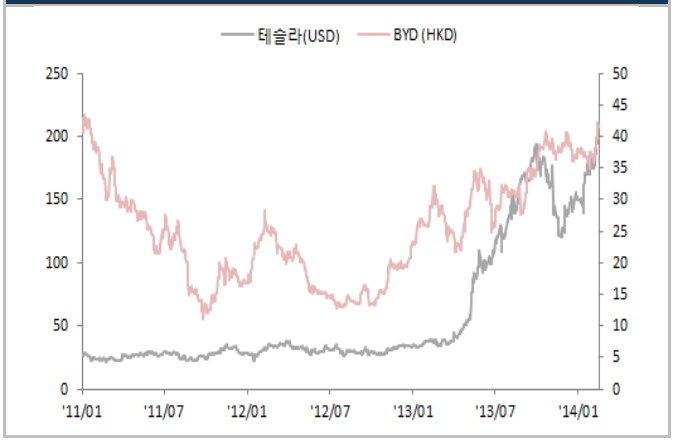
지난주 중국 증시는 IPO 청약 물량 부담 감소로 수급이 개선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어 강세장을 보였다. 중국 증시의 P/E 는 8 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저평가 되어 있다. 지난주의 경우 특히 저평가된 은행주와 환경보호 관련주, 친환경 자동차 등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중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하폭 축소 등 신에너지차량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리튬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즉, 재정부를 비롯한 4 개 부서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하이브리드차는 최대 3.5 만 위안, 전기차는 최대 6 만 위안까지 보조금 지급)에서 금년부터 축소하기로 하였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하 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존: 2013 년 지급액을 기준으로 2014 년에는 10%, 2015 년에는 20%를 축소->2014 년에는 5%, 2015 년에는 10%로 조정.) 관련주: Ankai Automobile (000868.SZ), BYD(002594 SZ), Tianqi Lithium Industries(002466 SZ), Xj Electric(000400.SZ), Zhongtong Bus Holding(000957.SZ) 등

Exhibit 43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 추이 – 석탄 의존율 70%



Source : 통계국, 리딩투자증권

Exhibit 44 테슬라 VS BYD -친환경 자동차주 강세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월 양회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양회에서 스모그, 미세먼지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의제가 핫 키워드로 논의되면서 환경보호섹터가 양회 테마주로 급부상 하였다. 12 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보조금과 세제 개선, 에너지효율 기준 제고 등의 정책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 주관 하에 100 억 위안 규모의 펀드를 세워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을 경우 장려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관련주:Sailhero Environmental Protection(300137.SZ), SDL TECH(002658. SZ), Skyray Instrument (300165.SZ), Longking(600388. SH), SPC(002573.SZ) 등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외국인의 순매도에 불구 국내경기 개선에 기대감이 작용하며 연기금의 순매수에 힘입어 0.9% 상승하였다.

'13 년 주요기업의 실적발표가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14 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연기금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금통위 금리동결과 옵션 만기 이후 국내증시는 상승을 보였고 옐런의장의 시장 우호적인 발언 및 유럽, 중국 지표개선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소재/산업재가 상승했다. 한편, 핀란드 게임업체 슈퍼셀(SuperCell)의 '13 년 매출이 8 억 9200 만달러로 발표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 관심이 높았다.

Exhibit 45 증시주변자금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4,341.0	688	537	-333	-3,851	129
국내주식형펀드	84,529	3	-181	494	-7,813	-849
신용융자(KSE+KOSDAQ)	4,328	27	110	-266	-215	145
MMF	83,436	3,887	9,291	7,124	15,124	15,710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6 투자주체별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146.9	-2,366.7	-4,011.2	10,346.3	-2,623.4
기관투자가	167.8	2,030.4	4,879.9	-3,883.9	1,071.3
(연기금)	322.2	758.5	2,517.3	5,380.3	1,034.1
개인	-24.4	288.9	-2.5	-4,353.8	1,414.7
기타	3.6	47.4	-866.1	-2,108.6	137.4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7 글로벌증시대비국내증시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WI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0.9	2.4	-1.4	141.9	-150.3	-5.6
에너지	1.5	2.5	-1.0	40.9	-57.9	13.0
소재	2.8	3.6	-0.8	92.9	-55.6	-35.9
산업재	1.2	1.7	-0.5	-55.7	-55.7	114.3
경기소비재	0.3	2.2	-1.8	85.7	-197.6	95.2
필수소비재	1.1	1.9	-0.8	26.7	27.3	-52.1
의료	0.7	3.3	-2.7	10.9	10.1	-20.8
금융	-1.4	1.9	-3.3	152.3	-236.3	68.1
IT	1.8	2.7	-1.0	-155.7	436.6	-270.2
통신서비스	-3.2	1.3	-4.4	-44.6	-46.0	94.3
유틸리티	0.9	3.0	-2.1	-11.4	24.9	-11.6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8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수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현대차	84.1	삼성전자	248.4
엔씨소프트	67.1	SK하이닉스	117.7
롯데케미칼	38.5	한국항공우주	57.1
현대제철	35.8	NAVER	55.1
삼성증권	33.4	LG디스플레이	48.4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9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도종목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삼성전자	-107.9	현대차	-122.7
한국항공우주	-64.2	엔씨소프트	-63.7
SK하이닉스	-55.2	신한지주	-63.5
NAVER	-52.2	삼성증권	-43.4
현대로템	-38.1	SK	-41.2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 원자재 가격동향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 트랜스 캐나다의 키스톤 송유관 개통으로 수요증가 전망으로 100.3 불로 마감하며 WTI 는 100 불을 넘었다. 북미 한파가 지속되며 천연가스 가격은 1 개월간 20.8% 상승했고 한파로 인한 1 월 경제지표 부진으로 금,은 가격은 각각 4.4%, 7.4% 상승했다. 1 월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어 유럽-중국간 교역확대 기대감으로 비철금속은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북미 한파로 인하여 겨울밀 생산량 부진 우려가 커지며 곡물가격은 상승을 보였으며 BDI 지수는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

Exhibit 50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1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2 옥수수와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3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낸드가격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4 주요원자재가격동향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100.3	0.4	8.3	7.0	1.9
Brent(ICE)	109.1	0.2	3.6	1.8	-1.1
천연가스(NYMEX)	5.2	9.2	20.8	42.8	24.4
금(NYMEX)	1,318.7	4.4	5.8	2.4	9.6
은(CME)	21.4	7.4	5.6	3.1	10.6
구리(LME)	7,150.0	0.1	-1.8	2.3	-2.9
아연(LME)	2,042.0	1.0	-1.2	8.3	-0.6
니켈(LME)	14,250.0	0.8	-0.6	4.4	2.5
알루미늄(LME)	1,745.5	1.5	-0.9	-2.5	-3.0
CRB 상품지수	293.2	1.2	5.3	6.9	4.7
밀(CBOT)	596.3	2.9	1.7	-9.6	-2.6
옥수수(CBOT)	450.8	0.2	2.6	1.3	4.8
대두(CBOT)	1,325.0	0.6	2.9	3.5	3.8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59.1	4.4	3.9	9.9	4.5
NAND 16Gb MLC	3.4	-0.3	-0.9	-4.2	-1.2
DDR3 1G 1333MHz	1.5	2.0	2.7	7.7	12.4
Baltic Dry Index	1,106.0	1.4	-22.2	-26.6	-51.4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 한국/미국기업실적발표

Exhibit 55 한국/미국 기업실적 발표

발표/예정	일자	기업명	TICKER	EPS(원, 달러) 발표치	예상치	Surprise(%)
발표	2014-02-10	한) 한국전력	015760 KS	110.95	-637.963	117.39%
발표	2014-02-10	미) Hasbro Inc	HAS US	1.12	1.217	-7.97%
발표	2014-02-11	한) 신한지주	055550 KS	4012	4000.04	0.30%
발표	2014-02-11	한) OCI	010060 KS	-13650	-13057.2	-4.54%
발표	2014-02-11	한) BS금융지주	138930 KS		1735.03	
발표	2014-02-11	미) Sprint Corp	S US	-0.26	-0.362	28.18%
발표	2014-02-12	한) 게임빌	063080 KS	2147	2299.02	-6.61%
발표	2014-02-13	한) 코오롱	120110 KS	4449	4845.2	-8.18%
발표	2014-02-13	한) 엔씨소프트	036570 KS	7238	7582.77	-4.55%
발표	2014-02-13	한) NHN엔터	181710 KS	1219.52	7678.65	-84.12%
발표	2014-02-13	한) LS	006260 KS	3205	5352.99	-40.13%
발표	2014-02-13	미) PepsiCo Inc	PEP US	1.05	1.004	4.58%
발표	2014-02-13	미) NVIDIA Corp	NVDA US	0.32	0.243	31.69%
발표	2014-02-13	미) Cisco Systems Inc	CSCO US	0.47	0.458	2.62%
발표	2014-02-13	미) Applied Materials	AMAT US	0.23	0.224	2.68%
발표	2014-02-14	한) 코웨이	021240 KS	3186.63	2459	29.59%
발표	2014-02-14	한) 다음	035720 KS	4862.88	5676.94	-14.34%
발표	2014-02-14	미) Kraft Foods Group	KRFT US	0.43	0.613	-29.85%
예정	2014-02-17	한) 빙그레	005180 KS		4157.1	
예정	2014-02-17	한) 뷰웍스	100120 KS		1045.8	
예정	2014-02-17	한) 롯데칠성음료	005300 KS		87239.5	
예정	2014-02-18	한) SK브로드밴드	033630 KS		40.587	
예정	2014-02-18	미) Coca-Cola Co/The	KO US		0.463	
예정	2014-02-19	한) 전북은행	006350 KS		1041.3	
예정	2014-02-19	미) Tesla Motors Inc	TSLA US		0.256	
예정	2014-02-20	미) DIRECTV	DTV US		1.293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유럽 담당(R.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R.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2013**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